

EV/모빌리티팀

임은영 팀장
esther.yim@samsung.com

김현지 Research Associate
hyunzi.kim@samsung.com

▶ 종목 정보

현대차 (005380KS, 700,000)

목표주가 900,000원 28.6%

BUY

기아 (000270KS, 164,300)

목표주가 240,000원 46.1%

BUY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자동차 (OVERWEIGHT)

4월 유럽 전기차: 기아 전기차, 기대해볼만 하다

- 4월 유럽 전기차 수요는 43.2만 대(+30.7%YoY)기록. 총수요는 115.2만 대(+7.0%YoY)로 호조. 전기차 침투율은 37.5% 기록.
- 전기차 시장에서 2월부터 중국 전기차가 VW를 추월. 테슬라는 2월부터 판매 회복. 기아는 EV2 가세로 3월부터 판매 회복.
- BYD, 테슬라, 기아가 유럽 업체의 M/S 잠식 중. 기아는 EV2의 유럽 전역 출시와 PV5 효율성에 대한 인지도 향상으로 BYD, 테슬라와 경쟁이 가능해질 전망.

WHAT'S THE STORY?

전기차 수요 성장세 확대: 유럽의 성장세 가속화. 중국 전기차업체가 VW 판매를 앞선 가운데, 테슬라와 기아의 판매 증가세 지속.

- **4월 유럽 전기차 수요:** 43.2만 대(+30.7%YoY)로 침투율 37.5% 기록. 전체 유럽 시장 수요는 115.2만 대(+7%YoY).
- **중국의 수요 둔화 vs 유럽의 수요 고성장:** 중국의 4월 전기차 수요는 88.9만 대(-12.5%YoY). 유럽의 전기차 수요는 중국의 절반 수준까지 성장.
- **중국 자동차 수출, 전기차가 50% 비중:** 중국 업체는 내수 시장의 수요 둔화와 가격 경쟁의 해결책으로 적극적인 수출 추진. 4월 전기차 수출은 27.8만 대(+40%YoY)로, 50% 비중. 가장 큰 수출 시장은 유럽. EU는 중국 전기차 유입을 제한하기 위해 상계 관세(10% 수입 관세와 별도: 업체별로 17%~35.3%)외에, 2027년에 IAA(산업가속화법) 발효 예정.
- **유럽 완성차업체의 중국 업체에 대한 의존도 증가, IAA 효과는 불확실:** 유럽 1위 업체인 VW(M/S 26%)은 샤오핑의 지분 5% 취득 및 샤오핑의 자율주행 기술을 VW 전기차에 탑재. 유럽 2위 업체인 스텔란티스(M/S 17%)는 립모터와 JV(스텔란티스 점유율 51%)를 설립하였으며, 유럽에 40개 딜러점 오픈. 또한 샤오핑, 샤오미에 마세라티 브랜드 매각 및 유럽 공장 매각 검토.
- **테슬라, 전년도 기저와 FSD 기대감으로 회복세:** 테슬라는 전년도 정치적 이슈로 판매 급감에 따른 기저 효과와 FSD 배포에 대한 기대감으로 2월부터 판매 회복. 4월 판매는 12,456대(-76.9%MoM, +66.1%YoY)로 테슬라는 분기말 판매가 급증하는 특징.
- **기아, 전기차 Full-line up 구축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 3월 말에 독일을 시작으로 EV2 판매 시작. 4월에 판매대수는 1,724대. 4Q26에는 유럽 전역에 출시하면서, EV2의 월 판매대수는 EV3 수준(월 8천대~1만대)까지 성장 예상. PV5는 맞춤형 생산에 대한 효율성이 알려지면서, 2026년 2월 이후 월 판매대수 3천대 수준으로 증가.

(다음 페이지에 계속)

업체별 실적: BYD(+66.1%YoY)를 포함하여, 중국 전기차의 고성장 지속 및 테슬라(+66.1%YoY), 기아(34.7%YoY)가 VW(+12.7%YoY), BMW(+12.3%YoY), 스텔란티스(+19%YoY)의 시장점유율을 잠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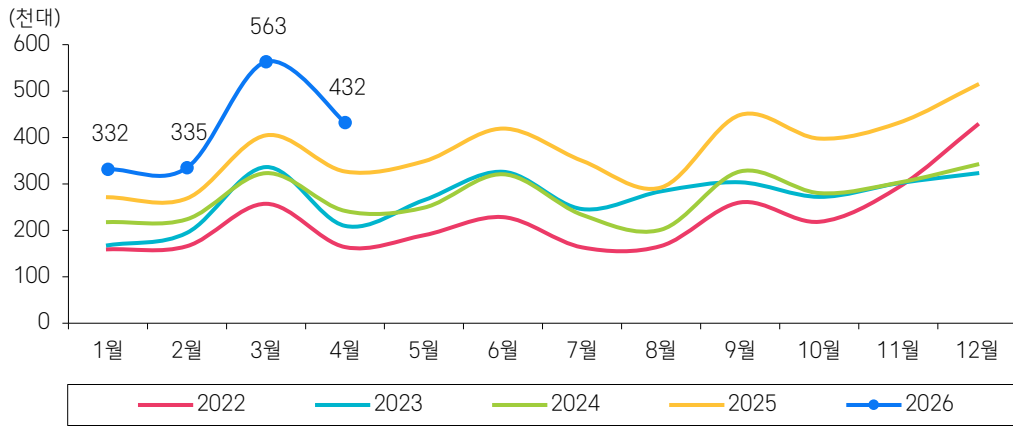
- **테슬라 M/S 2.9%(+0.6%pYoY)로, FSD 확산과 함께 판매 회복 지속:** 4월 판매 12,456대(+66.1%YoY) 기록. 감독형 FSD는 4월 10일에 네덜란드에서 먼저 허용되고, 리투아니아(5월 20일), 독일(5월 22일), 에스토니아(5월 29일)로 확대. 6월 말에 유럽 전역에 배포할 수 있는 유럽 기술 위원회 표결을 기대하는 중.
- **VW, M/S 23.8%(-4.1%pYoY)로, 하락:** 2025년 4월에 M/S 27.9%를 피크로 하락 중. 4월 판매 102,819만 대(+12.7%YoY)로 시장대비 성장률 하회. 스코다 Elroq이 유럽 전체의 베스트셀링 모델(10,817대)에 등극하였고, ID 시리즈 판매는 꾸준하지만, 경쟁사의 성장에는 미달.
- **BYD, M/S 8.9%(+1.8%pYoY) 및 3위 업체로 도약:** 4월 판매는 38,569대(+66.1%YoY)로, 전년도 100% 이상의 성장세에서는 둔화. 2위 업체인 스텔란티스와 1천대 판매 차이. 유럽 시장에서 판매가 성장하면서, 6월에 유럽 전용모델인 Dolphin G DM-i 출시 예정. 2만 유로 이하로 유럽 내 최저 가격 목표. 향후 3년간 B, C 세그먼트에서 유럽 전용 모델 출시 예정.
BYD는 2026년 하반기에 헝가리 공장 가동 예정으로, 보조금 수취를 위해 유럽 내에서 Value Chain 구축 예상. 최종 생산규모는 30만대이며, 초기에는 15만대 가동 목표. 첫 생산모델은 Dolphin Surf(중국명 Seagull)와 Atto2. 터키 공장(Capa 15만 대)도 2026년 가동 예정. 터키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EU와 관세 동맹국으로, EU로 무관세 수출이 가능.
- **중국 전기차(BYD포함), M/S 25.7%(+6.2%pYoY):** 4월에 110,855대(+74.4%YoY) 판매. 2월부터 VW의 판매를 추월. 업체별로는 BYD가 1위를 굳건히 하고 있으며, 그동안 중국 업체 판매를 견인했던 Geely와 SAIC은 점유율 둔화. Geely와 SAIC은 금융위기 이후 인수했던 볼보와 MG 브랜드를 기반으로 유럽에서 성장했지만, 신모델이 없어 점유율 둔화. 그 외 Chery, 니오, 샤오핑 등이 판매 증가.
- **현대차/기아, M/S 2.8%(-0.6%pYoY)/4.0%(+0.1%YoY):** 4월에 판매는 현대차 11,900대(+8.1%YoY)/기아 17,406대(+34.7%YoY). 현대차는 캐스퍼 외에는 중저가 전기차 라인업 부재로, 수요 성장률 하회, 아이오닉3가 하반기 출시 예정. 기아는 Full-line up 구축으로 판매 증가.
- **기아, 2026년 3월 부터 5개 전기차 라인업으로 산업 수요 성장을 상회:** 기아의 2026년 유럽 판매 목표는 전기차 판매 고성장을 기반으로 59.4만 대(+11%YoY)로 제시. 기아는 슬로바키아 공장에서 생산된 EV2가 국가별로 출시되면서, 판매 증가세. EV2의 2026년 판매 목표는 4.5만대, 2027년 판매목표는 10만대. PV5는 소비자 맞춤형 생산에 대한 효용이 알려지면서, 판매가 월 3천대 수준으로 증가. 2026년 판매 목표는 2.5만대.

참고) 주요 국가 전기차 부양책

2025년 하반기에 유럽 주요 국가의 전기차 수요 부양책 재도입: 독일은 법인 전기차 육성 정책에 이어 리테일 전기차 보조금도 재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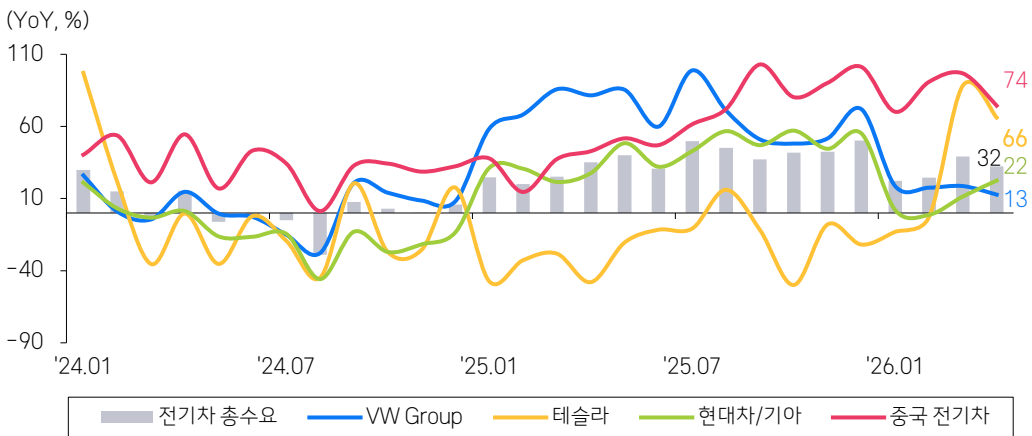
- **독일, 2025년 7월부터 대대적인 법인 전기차 육성 정책 실행:** 1)2025년 7월~2028년 말까지 법인 전기차에 대해 조기 감가상각(첫해 40%, 둘째 해 24% 등 총 6년에 걸쳐 상각) 허용. 2)법인 전기차 구입 시 차량 가격의 40%까지 세액 공제(최대 9.5만 유로) 3) 2035년까지 전기차에 대해 자동차세 면제. 4) 법인 전기차를 임직원 개인이 사용할 경우, 차량 가격의 0.25%만 소득세로 부과. 내연기관차의 경우 1%. 유럽은 법인이 차량을 구입하여, 임직원이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로, 전기차 수요에서 법인 차량 비중은 40%. 2025년에 독일의 전기차 수요는 88.5만 대(+51.8%YoY) 기록.
- **독일, 2026년에 개인 구입 차량에 대해서도 보조금 재도입:** 2023년 12월에 중단되었던 보조금을 재도입. 과거의 보편적 지원과 달리 가구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 1)가구당 연 과세소득 8만 유로 이하가 기본 자격이며,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소득 기준 5천 유로씩 상향. 최대 9만 유로까지 허용. 2) 순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3천 유로~최대 6천 유로(중저가 전기차 가격의 10~15%). PHEV와 EREV는 1.5천 유로~4.5천 유로.
- **프랑스 저소득 가구 대상 전기차 리스 제도 재도입:**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전기차시장인 프랑스는 2025년 9월 30일부터 저소득 가구 대상 전기차 리스 제도 재도입. 프랑스의 소셜 리스 제도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었으나, 한 달 만에 예산(6억 5천만 유로) 조기 소진으로 중단된 바 있음. 당시 해당 정책으로 약 한 달간 5만 대 리스 수요를 견인. 2025년에 프랑스의 전기차 수요는 47.4만 대(Flat YoY) 기록.
- **영국, 2025년 7월 16일에 전기차 구매 보조금 재도입:** 영국은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전기차시장. 7억 파운드의 구매 보조금과 6300만 파운드의 충전 인프라 투자, 생산 밸류체인 보조금 예산 발표. 2029년까지 운영 예정으로, 차량가격 3.7만 파운드 이하 전기차에 대해, 1,500~3,750파운드 지급. 2025년에 영국의 전기차 수요는 73.5만 대(+28.7%YoY) 기록.

유럽(EU+동유럽): 전기차 수요 월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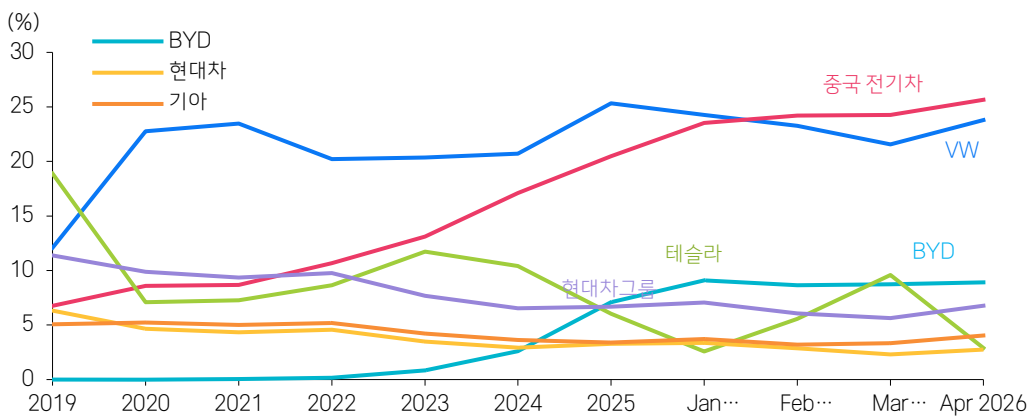
자료: EV-Volumes, 삼성증권

유럽(EU+동유럽): 주요 업체 YoY 판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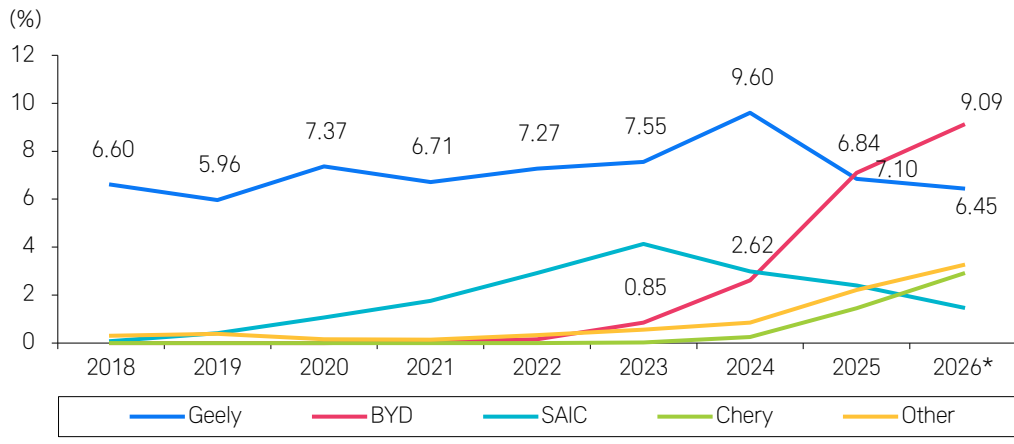
자료: Marklines, 삼성증권

유럽 전기차시장: 주요 업체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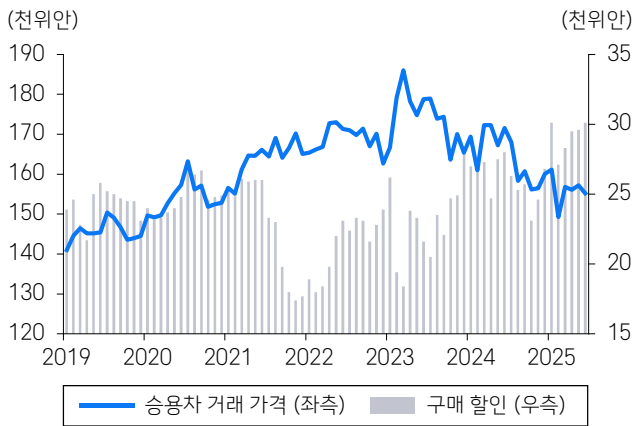
자료: EV-Volumes, 삼성증권

유럽 전기차시장: 중국 업체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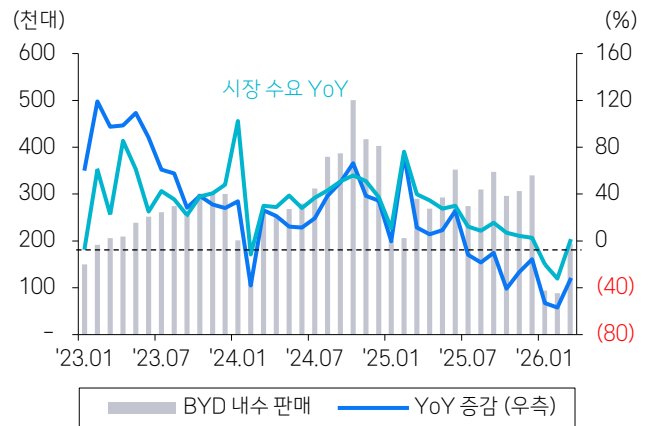
자료: EV-Volumes, 삼성증권

중국 시장: 승용차 거래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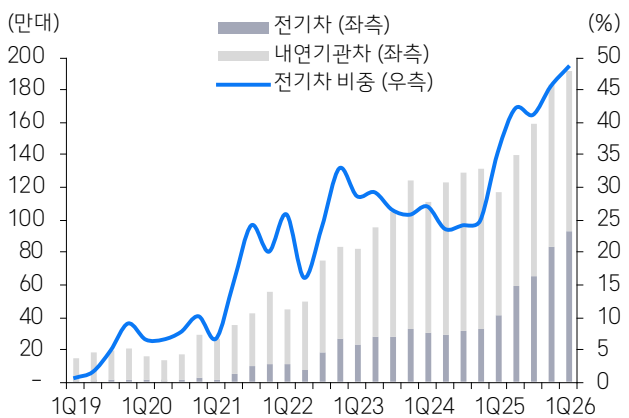
자료: Wind, 삼성증권

BYD: 중국 내수 판매 8개월 연속 감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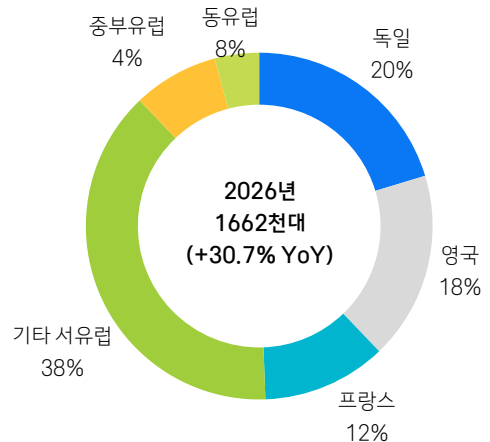
자료: CPCA, 삼성증권

중국: 자동차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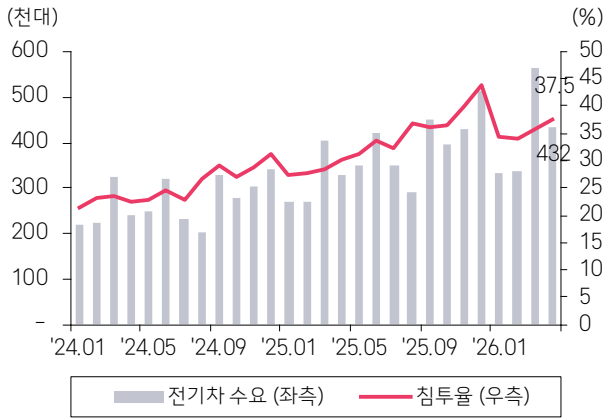
자료: CEIC, 삼성증권

유럽: 국가별 전기차 수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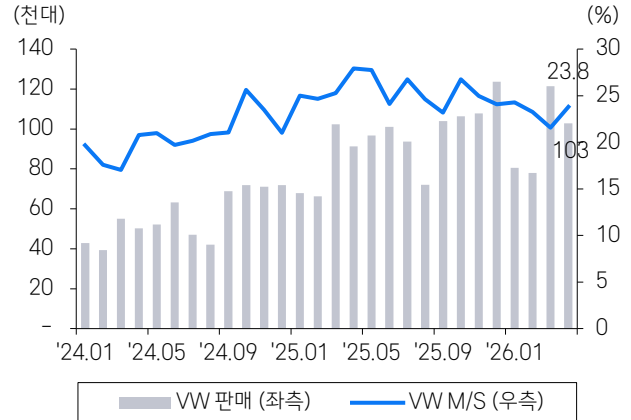
참고: 4월 YTD
자료: EV-Volumes, 삼성증권

유럽 전기차 수요 및 침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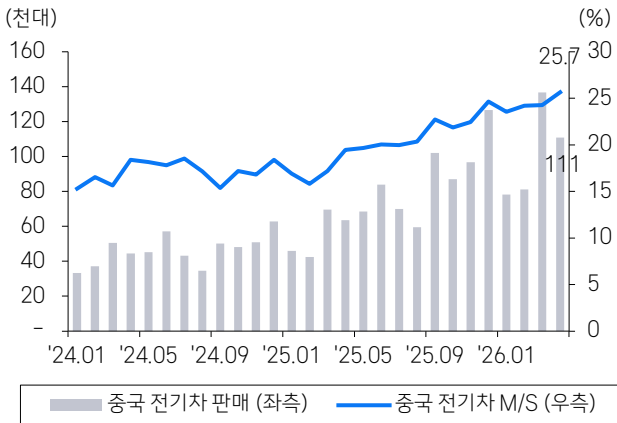
자료: EV-Volumes, 삼성증권

유럽시장: VW전기차 판매 및 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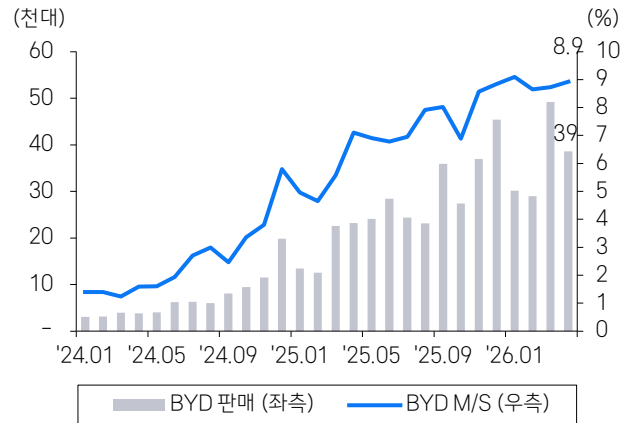
자료: EV-Volumes, 삼성증권

유럽 시장: 중국 전기차 판매 및 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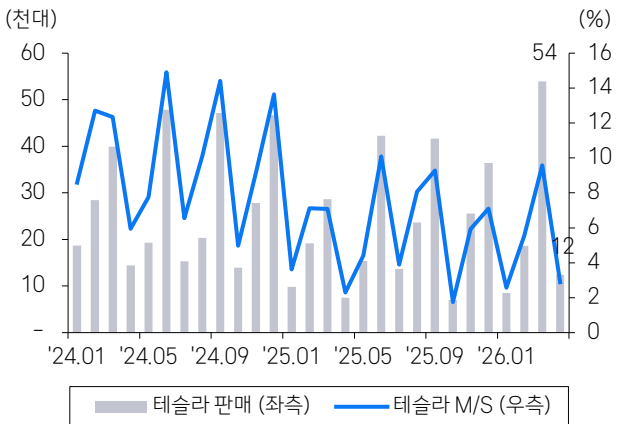
자료: EV-Volumes, 삼성증권

유럽 시장: BYD 전기차 판매 및 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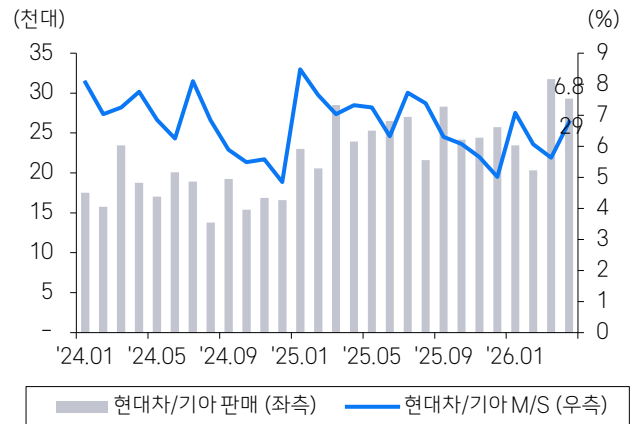
자료: EV-Volumes, 삼성증권

유럽 시장: 테슬라 판매 및 M/S



자료: EV-Volumes, 삼성증권

유럽 시장: 현대차/기아 전기차 판매 및 M/S



자료: EV-Volumes, 삼성증권

기아: PV5



자료: 구글 이미지

기아: PV5



자료: 구글 이미지

기아: EV2



자료: 구글 이미지

기아: EV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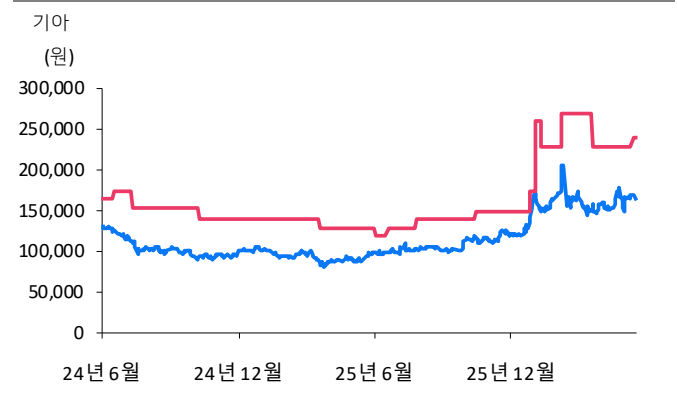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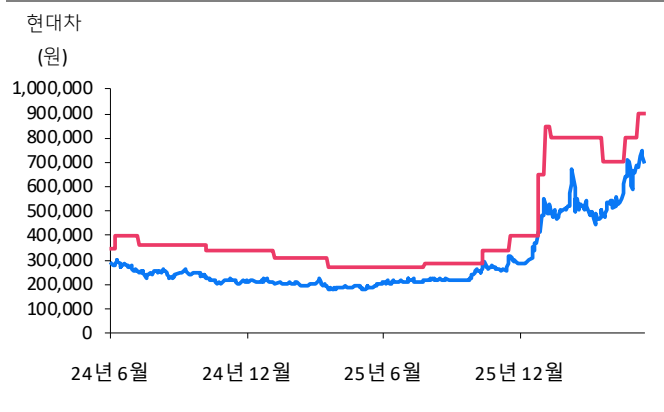


자료: 구글 이미지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2026년 6월 4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2026년 6월 4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2년간 목표주가 변경 추이



2026.6.5

최근 2년간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경 (수정주가 기준)

현대차												
일 자	2024/5/29	6/25	7/26	10/25	2025/1/24	4/7	8/14	10/31	12/8	2026/1/14	1/22	1/30
투자의견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TP (원)	345000	400000	360000	340000	310000	270000	285000	340000	400000	650000	850000	800000
과리율 (평균)	-21.52	-31.63	-32.30	-37.27	-34.90	-26.06	-20.49	-20.69	-22.55	-27.91	-40.91	-35.99
과리율 (최대or최소)	-16.96	-25.50	-28.06	-33.38	-28.39	-17.41	-7.02	-7.35	1.50	-15.54	-37.88	-15.75
일 자	4/7	4/10	5/11	5/27								
투자의견	BUY	BUY	BUY	BUY								
TP (원)	800000	700000	800000	900000								
과리율 (평균)	-37.66	-23.42	-17.04									
과리율 (최대or최소)	-36.50	-12.43	-26.00									
기아												
일 자	2024/5/29	7/4	7/29	10/28	2025/4/7	6/20	7/7	8/14	11/3	2026/1/14	1/22	1/29
투자의견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TP (원)	165000	175000	155000	140000	130000	120000	130000	140000	150000	175000	260000	230000
과리율 (평균)	-24.20	-31.41	-34.54	-30.66	-30.49	-17.88	-21.50	-24.00	-20.38	-7.53	-40.63	-30.12
과리율 (최대or최소)	-19.82	-27.83	-27.68	-23.79	-23.38	-15.75	-15.08	-14.36	-9.33	-1.66	-38.85	-24.35
일 자	2/25	4/7	6/1									
투자의견	BUY	BUY	BUY									
TP (원)	270000	230000	240000									
과리율 (평균)	-39.27	-30.51										
과리율 (최대or최소)	-23.70	-21.96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 삼성증권은 기업 및 산업에 대한 투자등급을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2023년 7월 27일부로 기업 투자 등급 기준 변경

기업

- BUY (매수) 향후 12개월간 예상 절대수익률 15% 이상
그리고 업종 내 상대매력도가 평균 대비 높은 수준
- HOLD (중립) 향후 12개월간 예상 절대수익률 -15%~15% 내외
- SELL (매도) 향후 12개월간 예상 절대수익률 -15% 이하

산업

- OVERWEIGHT(비중확대) 향후 12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5% 이상 상승 예상
- NEUTRAL(중립) 향후 12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과 유사한 수준 (±5%) 예상
- UNDERWEIGHT(비중축소) 향후 12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5% 이상 하락 예상

최근 1년간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비율 2026.03.31 기준

매수(85.2%)·중립(14.8%)·매도(0%)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